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닮은 영웅일 뿐이다”

《슈퍼 로봇의 혼》 펴낸 선정우씨

키 18미터, 가슴둘레 13.6미터, 다리길이 7미터, 체중 20톤의 거대한 체구. 강도와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 '초합금 Z'로 제작된 피부조직. 최신 에너지 시스템인 광자력 에너지가 시스템을 움직이며, 정의를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는 '열혈남아'.

이상은 로봇만화시대를 열었던 전설적인 로봇 '마징가 Z'의 신상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 386세대 혹은 그 이후 세대들을 그토록 열광시켰던 마징가 Z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이 전설 속 로봇의 실체를 알려주겠다고 나선 만화광이 있다. 《슈퍼 로봇의 혼》(시공사)을 펴낸 선정우씨(29, 출판기획자·만화칼럼니스트)다. 이 책은 마징가 Z부터 갯타 로보까지 거대 로봇물이라 불리는 슈퍼 로봇들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서다.

인간의 의지와 감정 반영한 슈퍼 로봇

로봇 애니메이션의 원조는 일본에서 제작된 <철완 아톰>이다. 우리나라에선 <우주소녀 아톰>으로 알려진 이 로봇은 인간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였다. 이것이 인간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철인 28호>부터고, 마침내 인간이 답습하는 로봇개념이 도입된 건 <마징가 Z>에 이르러서다. 그렇다면 '슈퍼 로봇'이란 과연 무엇일까.

“과일릿이 주역 로봇과 하나가 돼 표현되거나 로봇이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듯 묘사되는 것이 슈퍼 로봇물의 특징이죠. 반대개념으로 '리얼 로봇물'이 있는데, 리얼 로봇이 '전쟁'이란 개념을 도입해 로봇이 도구로 취급되는 반면, 슈퍼 로봇은 좀더 인간적이죠. 하지만 모든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닮은 영웅일 뿐입니다. 영웅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로봇의 모습도 변해온 것이죠.”

선씨가 만화에 몰입하기 시작한 것은 서너살 무렵부터다. 만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부모님 덕분에 만화영화는 물론 만화책을 정말 원 없이 보고 자랐다. 처음엔 집안에 텅구는 만화책을 그냥 한글도 모른 채 책장만 넘기며 봤다. 그러다 저절로 한글을 깨쳤고, 다섯살 때부터는 스스로 만화책을 골라봤다. 그가 고사리 손으로 산 첫 만화책은 1979년 출간된 순정만화 《캔디 캔디》. 이 때부터 만화책 수집이 시작돼 지금까지 1만여권을 모았다. 국내에서 출간된 만화책은 단행본과 잡지를 불문하고 거의 다 소장하고 있



선정우씨

는 셈이다. 하드웨어 못지않게 그의 머릿속에 구축된 소프트웨어도 만만찮다. 오로지 만화에 대한 열정, 그 특심 하나로 23년을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미혼이지만 그는 자신을 '만화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제가 마징가 Z를 TV에서 본 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방영된 로봇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는 386세대나 그 이후 세대들이기 때문이죠. 제 기억속에 남아 있는 건 마징가 시리즈의 마지막 주자인 그레이트 마징가 정도죠. 그 이전 방영물들은 대개 재방송이나 그 이후 비디오를 통해 봤죠.”

일본에 한국만화 알리는 데도 앞장서

일찌감치 컴퓨터에 눈을 뜬 그는 PC통신과 인터넷을 주무대로 필력을 과시해왔다. 대학시절부터 각종 애니메이션, 만화동호회와 웹진에서 만화칼럼니스트로 활약해온 지 올해로 13년째다. 본래 전공은 만화가 아닌 컴퓨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만화칼럼니스트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만화에 대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죠. 대부분 로봇과 관련된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저의 글쓰기는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이라기보다 작품안내에 가깝습니다.”

만화에 대한 관심이 한글을 깨치게 했다면, 슈퍼 로봇에 대한 열정은 일본어에 눈뜨게 했다. 처음 일본만화 원서를 볼 땐 아는 한자를 중심으로 대충 스토리를 유추해서 봤는데, 그렇게 4~5년을 보고 나니 어느 날부터가 일본어가 술술 익히더라. 만화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니 전설 속 슈퍼 로봇도 그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한때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그는 지금 출판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무려 30군데, 지금도 한달에 4군데 이상 칼럼을 연재한다니 본업은 여전히 만화칼럼니스트인 셈이다.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 만화를 소개하는 글을 《요미우리 신문》에 연재하고 있어 한국만화를 일본에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박옥순기자